한-아세안 정상회의서 10조 '북한개발은행' 논의되나

북 개방 대비 '한반도 평화' 안정적 인프라 자금 조성
청 "공식 논의된 바 없어"…비핵화 협상 결렬 속 신중

내달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북한개발은행'을 부산에 설립하는 방안이 공식 의제로 논의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비핵화 이후 시장을 개방하고 기반시설 개발을 본격화할 때를 대비해 10조원 규모의 지원자금을 미리 조성하자는 취지로, 한국 정부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이 사안을 이슈화하며 아세안 정상들의 지지를 발판 삼아 국제사회의 참여를 견인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9일 정부와 부산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와 외교부 등을 중심으로 조만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다룰 의제를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부산시가 제안한 북한개발은행 설립안 역시 하나의 아이디어로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개발은행 설립안이 처음 제안된 것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부산 사상공단에서 열린 부산비전선포식 참석을 위해 부산을 찾았고,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을 만난 오거돈 부산시장이 "북한 개발은행 설립을 정상회의 의제로 채택해달라"라고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 역시 당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부산시는 개발은행 설립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개발은행 초기 투자금은 10조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정부 및 전국 자치단체가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을 비롯,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이 기금 마련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의 참여도 유도하겠다는 것이 부산시의 구상이다.

이런 구상은 내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경우 그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최근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에는 김 위원장의 참석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번 회의를 남북관계 개선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아세안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북한개발은행 설립을 공론화한다면, 정부의 관계 개선 의지를 북한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청와대에서는 아직 북한개발은행 설립안의 경우 공식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아니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아직 의제설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며 "북한개발은행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언급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최근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다시 난항을 겪는 등 민감한 시점임을 고려, 정부가 의제 설정에 한층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573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르게 말하는 품격정치" vs "애민은 어디에"

한글날 논평…정의 "기득권 타파"·대안 "국민 목소리 전달"

여야는 573돌 한글날인 9일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되새겨 '애민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막말을 의식한 듯 '품격있는 언어정치'에 방점을 찍었지만,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불통으로 애민정치를 찾아볼 수 없다며 여권을 공격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일제히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민생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권의 막말 사태가 끊이지 않는다. 오늘의 정치인들 모습이 실로 부끄럽다"면서 "바르게 말하는 품격있는 정치를 다시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세종은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으로 누구든지 알기 쉽고 배우기 쉬운 한글을 지어 널리 퍼뜨렸다"며 "하지만 573년 전 세종대왕이 강조한 통치자의 기본, '애민'은 그 어디에도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백성만을 생각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본받아 국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애민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기득권 타파와 평등을 구현한 한글 창제정신을 되새기겠다"며 "한글의 창제정신과 우수성에 걸맞도록 노동시간의 단축, 평생교육의 확대 등으로 기득권 타파와 평등을 향해 나아가자"고 밝혔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애민정신 핵심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다"며 "남은 국감 기간 '민생국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안신당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바르게 말하고 귀담아듣는 정치의 복원이 시급하다"며 "막말로 더럽혀진 정치의 언로를 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분단에 남북 말 달라져…세종대왕께 부끄러운 일"

이 총리, 한글날 경축사 "겨레말큰사전 마음 모아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글날인 9일 "조국 분단 70년은 남북의 말까지 다르게 만들고 있다"며 "온 겨레가 한글로 한 덩이가 되도록 더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573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요즘 우리에게는 세종대왕께 부끄러운 일이 생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겨레말 큰사전'을 남북이 함께 편찬하기로 2005년 합의했지만,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며 "겨레말 큰사전 공동편찬을 위해 남북이 다시 마음을 모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우리는 세종대왕의 뜻을 다시 새겨야 한다"며 "선조들께서 한글을 지키고 가꾸려고 흘리신 피와 눈물과 땀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을 줄이고 전문용어도 쉬운 우리말로 바꿔야 한다"며 "거칠고 어지러운 말과 글을 줄이고, 곱고 가지런한 말과 글을 늘리도록 언론과 학교와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총리는 "573년 전 오늘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이 쉽게 익혀 편하게 쓰도록 한글을 만들어 펴내 주셨다"며 "한글은 새로운 세상을 우리 겨레에게 열어줬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세계에는 약 3,000개 민족이 7,000개 언어를 쓰며 산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인류가 쓰는 글자는 28가지만 남았다. 그 가운데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가 확실한 글자는 한글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 세계에는 한글을 배우는 사람이 늘어난다.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가 1997년에는 4개 나라 2,692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6개 나라, 32만9,224명으로 불었다. 해외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세종학당도 2007년의 3개 나라, 13곳에서 올해는 60개 나라, 180곳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말과 한글을 세계에 더 확산하기 위해 세종학당을 2022년까지 220곳으로 늘리려 한다. 외국 대학의 한국어 학과와 해외 파견 한국어 교원도 늘리겠다"고 소개했다.

이 총리는 '말을 통해 사람들이 한 덩이가 되고 그 덩이가 점점 늘어 나라를 이룬다.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다'는 주시경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온 겨레가 한글로 한 덩이가 되도록 더 노력하자. 말이 오르고, 나라도 오르도록 함께 애쓰자"고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 무리한 수사 제동" vs "사법부 수치"

조국 동생 '영장기각' 공방

여야는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씨(52)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자 정반대의 시각을 드러내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자 발끈한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속하지 않아도 조사할 수 있는데 검찰이 굳이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도 동의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 것 같다.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이 다분히 보여주기식 영장청구를 한 것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의원은 모 방송에 출연, "검찰로선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일단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상당히 이로운 상황이 전개됐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상태인데, 정작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으니 기가 막힌 일"이라며 "'조국 왕국'의 첫번째 수혜자는 정경심씨, 두번째 수혜자는 남동생 조씨"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불법적인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에서 한 쪽만 구속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연합뉴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박주민(왼쪽), 김상희(오른쪽) 공동위원장이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성토지 【급매】
광주에서 20분
(장성군청~장성댐사이)
⇒ 국도도로 12m접 (앞면30m)
① 매매가 시세 10억 (1080평)
↳ 7억 5천
② 평수(230평, 매매가 1억6천)
⇒ 전원주택,물류창고,사무실 투자적합
■ 추 천 물 건
① 장성읍 용강리 국도변접함(760평) → 매매가9천5백만
② 장성남면월정리(1093평) → 매매가6억5천만
③ 장성필암리(답)(925평) → 매매가2억8천만
④ 담양읍메타세쿼아도로접(1470평) → 매매가8억2천만
⑤ 광주서구서창(197평)시청에서20분거리 → 매매가5억9천만
010-6670-9800

경매교육 [특수전문]
❶ 특수반 모집(매주 개강)
이제 특수경매만이
큰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 엔피엘)
※10억짜리 부동산 ↛ 3억에 가능
❷ 매주 토요일
• 기초무료교육 실시
❸ 전문반 모집
• 책상, 컴퓨터 제공
• 주1회 물건분석 스터디
❹ 경매투자 연30% 수익가능
• 근저당 설정 시 연 15% 가능
대신경매 010-4667-9820

경매물건 (추천)
부동산 경매
〈아파트, 주택〉
아파트 - 광산구 삼각동 - 건물 59.89㎡ - 감정가 1억3천 - 최저가 9천만
아파트 - 광산구 운남동 - 건물 49.69㎡ - 감정가 1억1천만 - 최저가 7천8백만
주택 - 동구 학동 - 토지 186㎡ - 감정가 1억7천만 - 최저가 1억7천만
주택 - 남구 백운동 - 건물 243.77㎡ - 감정가 3억1백만 - 최저가 2억1천만
근린상가 - 서구 치평동 (구분건물) - 건물 64.8㎡ - 감정가 6억 - 최저가 2억6천만
근린상가 - 서구 치평동 구분건물 - 건물 341.05㎡ - 감정가 8억2천만 - 최저가 5억7천만
다가구(원룸) - 서구 금호동 - 건물 373.58㎡ - 감정가 6억4천만 - 최저가 4억4천만
임야 - 광주 광산구 동산동 - 임야 3502㎡ - 감정가 1억5천만 - 최저가 1억만
〈특수 물건〉
잡종지 - 남구 송하동 - 지분5481㎡ - 감정가 18억1천만 - 최저가 12억6천만
토지 - 전남 장성 삼서면 - 농지 2079㎡ - 감정가 7천만 - 최저가 7천만
숙박시설 - 전남 함평 학교면 - 건물 2025㎡ - 감정가 25억3천만 - 최저가 9억원
숙박시설 - 충남 아산시 음봉면 - 건물 2308.03㎡ - 감정가 24억1천만 - 최저가 5억7천만
근린시설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 건물 1826㎡ - 감정가 12억9천만 - 최저가 5억2천만
다가구(원룸) - 경기 화성시 병점 - 건물 480.22㎡ - 감정가 10억2천만 - 최저가 4억9천만
근린주택 - 충남 예산군 봉산면 - 토지 10418㎡ - 감정가 11억5천만 - 최저가 3억9천만
다세대(빌라) - 충남 태안 태안읍 - 건물 970.26㎡ - 감정가 7억6천 - 최저가 6억3천만
〈매매 및 임대〉
용봉동 원룸 매매 - 룸15개 - 월수입500만원 - 매매가 7억2천만원
치평동상가6층,80평 - 콜롬버스영화관 바로앞 - 보2천만,월150만원 - 매매가 1억8천만원
광산구 산정동 (부동산사무실코너) - 즉시입주가능 (관리비 무) - 보3백만원,월25만
쌍암동 상가 (10층,24평) - 보5백만,월40만원 - 매매가7천만원
◆ 기본권리 분석된 물건만 선별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 그밖의 물건(부동산)도 많이 있습니다.
010-6670-9800